



일본 정부, 2012회계연도 차입 예산안 발표

이상우 선임연구원

- 일본 정부는 12월 24일 노다 일본총리 주재로 각료회의를 열어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90.3조 엔으로 확정함.
 - 일본 정부에 따르면 2012회계연도(2012. 4~2013. 3) 예산안 가운데 신규 국채 발행액이 44.2조 엔으로 사상 최대 수준인 예산안의 49%에 달함(2011년도는 예산의 48% 수준).
 - 예산의 국채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선진국 중 최악 수준인 일본의 재정 건전성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임.
- 2012회계연도 국채 원리금 상환액은 21.9조 엔으로 2011년도 대비 약 5,000억 엔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.
 - 2012년도 일반회계 규모는 2011년도(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 92.4조 엔) 대비 2.2% 감소해 6년 만에 감소세를 나타냈으나,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빠진 동일본 대지진 복구 및 부흥 예산 등을 합하면 2012년도 예산규모는 93.6조 엔으로 역대 최대 수준임.
- 한편, 일본 정부는 2012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.7~2.9% 수준에서 2.2%로 하향 조정함.
 - 일본 정부는 역대 사상 최고 수준인 엔화 강세와 유럽발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로 올해 실질성장률이 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함을 밝힘.
- 일본 재무성 장관은 일본의 예산 편성 과정과 국채 의존도는 이미 한계 수치에 도달했다며 노령화 사회 대비를 위해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소비세율을 10%까지 인상하는 등 세제 인상 의지를 밝힘.
 - 이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 중 10여명의 의원이 탈당계를 신청하는 등 정부의 세제 인상안에 대해 여당 의원들의 반대가 확산되고 있음.

(니혼게이자이신문, 아사히신문, 요미우리신문, 마이니치신문 12/26, 12/29 뉴스 종합)